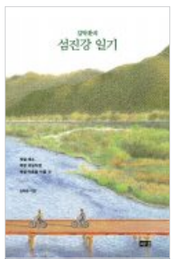
오전에는 글밭, 오후에는 텃밭…초록빛 글을 심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김탁환의 섬진강 일기

김탁환 지음



"강가에서 만나는 풍경이 그냥 풍경이 아닌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 약한 것, 여린 것에도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이야기를 발견하고 상상하면서 한 수 배운다. 제대로 공들여 발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진 대신 그림을 권하는 이들도 있다. 손재주가 없는 나는 그리진 못하지만, 나무든 풀이든 고양이든 강아지 똥이든 수달 똥이든, 그 앞에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두 시간씩 에버노트에 끼적거린다."(본문 중에서)

역사소설 '불멸의 이순신'를 썼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역사추리소설 '백답파 시리즈'를 시작했으며 '나, 황진이' 등을 펴냈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끝으로 대학을 떠났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왔을까'를 비롯 30편의 장편과 3편의 단편집, 3편의 장편동화를 냈다.

바로 김탁환 소설가다. 서울대 국문과를 입학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신화와 전설, 민담, 고전소설에 매료돼 서사의 세계에 빠졌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구축해온 김탁환 작가는 최근 서울에서 곡성으로 집필실을 옮겼다. 자칭 초보농사꾼으로 초보 마을소설가로 새 삶을 시작한 그는 섬진강 들녘에서 글농사와 함께 논농사를 짓고 있다. 물론 텃밭도 일구고 있다. 그가 이번에 발간한 '김탁환의 섬진강 일기'는 "첫 해의 봄여름가을겨울을 겪으며 서툴지만 한 걸음씩 디딘 마음들을 생생히 기록한" 책이다.

'제철 채소 제철 과일처럼 제철 마음을 먹을 것'이라는 부제가 눈길을 끈다. '제철'이란 가장 알맞은 때를 말하듯이, 작가는 가장 '알맞은' 것을 추구하는 모양이다. 그 알맞은 마음이란 "익숙한 글감에 젖어 늙어가지 않고 알고 싶은 세계로 다가가서 살피고 사귀며 다정한 글을 쓰고자" 하는 스스로의 다짐일 것이다.

책은 1월부터 12월까지 작가가 마주한 풍경과 그것과 결부된 마음을 '인디언 달력'처럼 구성하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일기의 형식을 취한 글은 번뜩이는 문장과 감성이 가득하다.

1월 1일 '도착과 출발'이라는 제목의 글은 이렇다. "쓰고 싶은 장편이 있어 섬진강 들녘으로 집필실을 옮겼다. 가수는 노래 따라 가고, 소설가는 이야기 따라 간다고 했던가. 하염없이 걷고 원 없이 쓰겠다."

소설가로서의 창작을 향한 열정뿐 아니라 농부로서의 고군부투도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시금치를 심으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를 떠올리며, 못줄에 맞춰 모내기를 하며 자신의 문장을 들여다본다.

자연의 섭리는 작가에게 엄정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나물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서 정확하게 알고 쓰는 일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길 위에서 맞닥뜨린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 겸손과 생태계의 순환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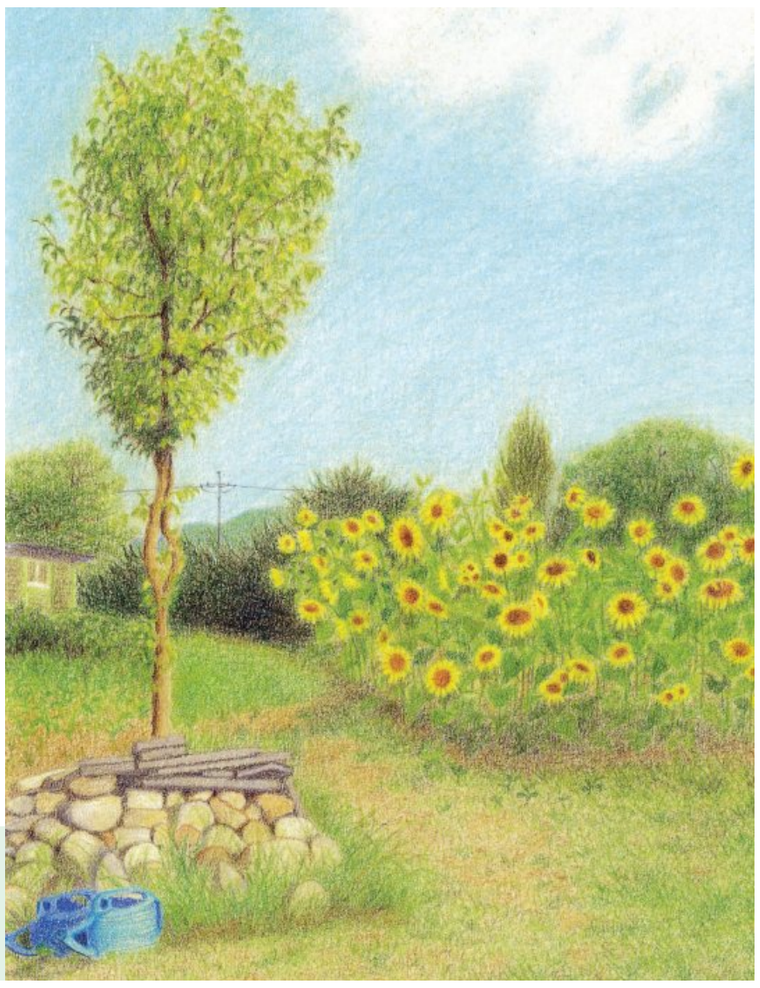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도 시작한다. 생태 워크숍을 비롯해 이야기 학교 등 주민을 위한 강의도 진행한다. 아끼는 책을 토대로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을 열고 책방지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맘때인 4월 29일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집필실 '달문의 마음'에 처음으로 독자들을 초대하여 북토크를 가졌다. 참석자는 모두 곡성 군민이다.(중략) 달문에 대한 소개부터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평생 책 한 권 읽지 못했으나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았던 조선 후기의 광대. 중요한 것은 책이 아니라 책을 통해 가 닿을 사람의 마음이다."

일기를 읽다보면 어느 순간 문장에 스민 풍경과 고운 흙냄새를 느낄 수 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 다채롭게 변주되는 글과 시와 판소리가 잔잔하게 마음을 다독인다. 아울러 베짱이도서관 박소영 관장이 그린 색연필화를 보는 맛도 무엇에 비할 바 없다.

〈해냄·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에서 곡성으로 집필실을 옮긴 김탁환 작가는 글농사와 함께 논농사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있다. 집필실 인근의 초록이 무성한 풍경. 〈해냄 제공〉

레이디 맥도날드

한은형 지음

백수린 소설가는 이 작품에 대해 "나는 이 잘 읽히는 소설을 아끼는 사탕을 녹여 먹듯 천천히 읽어야 했다. 그녀가 못내 사랑스러워서. 그녀의 삶이 너무 애틋해서"라고 평했다. 한은영 작가의 장편 '레이디 맥도날드'에 관한 언급이다.

2012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며 2015년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한은형 작가의 이번 장편 '레이디 맥도날드'는 실제보다 더 사실적인 내용을 그린 소설이다. "화가의 문체와 철학자의 상상력"이라는 문학평론가 정여울의 표현처럼 작품은 깊은 사유와 그리고 그리듯 풀어낸 문장이 묘미를 선사한다.

소설은 지난 2010년대 초 언론에서 소개해 반향을 일으켰던 '맥도날드 할머니'를 모티브로 한다. 매일같이 트렌치 코트를 차려입고 정동 맥도날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노숙인이 등장한다. 부족한 생활비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방송국 PD에게 호텔에서 음식을 대접해달라고 부탁하는 할머니는 '허영심에 빠져 현실파악을 하지 못하는 인물'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할머니를 재해석한다. 혹여 그 할머니는 비루한 일상에서도 나름 생활을 아름답게 일궈나가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작가가 그린 할머니는 창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가상의 인물이다. 물론 방송 내용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됐지만, 이를 뛰어넘어 보다 입체적인 '김윤자'라는 인물로 형상화됐다.

할머니는 '레이디'로 불려야 마땅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고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소설은 숨을 멈춘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앉아 있는 죽음을 통해 김윤자의 성정을 극명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그녀가 죽기 직전 일 년의 삶을 되짚어가며 말년을 이해할 열쇠를 조금씩 풀어낸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

김수엽 지음

"봄이면 어김없이 초록이 찾아온다. 학창시절 짜장집 동생으로 살아가며 주말바다 책가방 대신 철가방을 들었다. 내 시가 짜장면처럼 시커멓고 부끄럽다. 우리 엄마가 남겨준 그 빛나는 숨소리 고스란히 내 몸속에서 날마다 움직인다."

전북 완주 출신으로 중앙일보 연말 장원(1992)과 199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수엽 시인. 그가 이번에 발간한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는 기억에 대한 소묘다.

시인이 '지은이의 말'을 통해 밝힌 대로 그의 뇌리에는 "눈물과 웃음 그리움의 잔해"가 남아 있다. 얼핏 옛 시절 흑백 사진 속의 풍경과도 같은 모습은 정겹기도 하고 가슴 한 켠을 싸하게 짓누르기도 한다.

시인의 작품에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소담하게 담겨 있다. 잔잔하지만 결코 정적이지 않는 단단한 울림은 오랫동안 연마해온 시조에 대한 열정에서 기인한다.

"너의 눈빛 나의 눈빛/ 한 점으로 부딪칠 때/ 그 순간 숨이 멎고 손바닥에 땀이 나면/ 이런 게/ 사랑이라고 내 심장이 쿵쿵거린다// 그대 앞에 눈 감아도/ 한꺼번에 안기는 마음/ 손잡으면 체온들이 두딪쳐서 뜨거운 몸/ 목젖이/ 꼴깍거리며/ 마른침을 삼킨다…"

표제시 '등으로 안을 수 없다'는 그리움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다. 정밀한 언어의 직조와 압축미 이면에 드리워진 정서는 시인의 시적 지향을 보여준다.

한편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시인은 생명 있는 것들이 어울리는 고요한 화음(和音)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 있다는 존재 증명의 기운을 강렬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 '역동의 고요'를 통해 언어를 넘어선 '빛나는 숨소리'를 듣게 된다"고 평했다. 〈상상인·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구를 살리는 옷장

박진영·신하나 지음

우리는 매일 다른 옷을 입지만 정작 그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전세계 패션 시장의 규모는 약 3690조 원. 매년 800억 벌 가량의 옷이 팔린다. 패션 업계가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폐수 발생의 20%에 달한다.

같은 패션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 친구가 된 박진영과 신하나는 패션 산업 절반에 걸친 환경오염, 노동착취, 동물학대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만연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의류 제품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현실을 방관하거나 냉소하지 않으면서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질 좋고 튼튼한 옷. 동물과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옷.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발자국을 최대한 덜 남기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박진영과 신하나가 펴낸 '지구를 살리는 옷장'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향한 여정을 담았다.

저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패션 산업과 그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할 때 '지속가능한 패션'은 이제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한다.

거대한 규모의 패션 산업이 지닌 문제와 동물성 소재 사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담아냈다.

비건인 두 작가가 비거니즘이란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하는 철학이라는 점을 짚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독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함께 소개한다. 〈창비·1만4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